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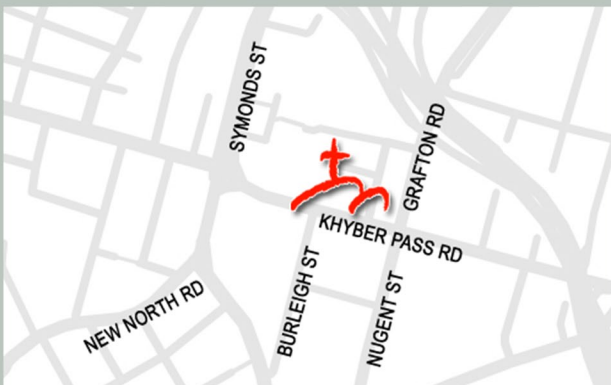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10월 27일은 2019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 오는 23일 수요일 예배는 3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 주요 3면 나눔란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신앙 목표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10월 교회 사역 일지]

- 11일(금): 저녁 기도회
- 23일(수): 3 여선교회 주관 예배
- 27일(주일): 감사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b>주일에배</b>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95:6-8		인도자
■ 찬송	27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268장	-----	다같이
대표기도	-----		김병진 목사
성경봉독	창세기 1:3-5	-----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를 만나이다	-----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	이태한 목사
찬송	304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b>수요예배</b>	오후 7시30분	<b>청년예배</b>	오후 3시 15분
기도	황경임 집사	금주기도	권우석 형제
성경봉독	누가복음 14:7-11	다음주일	홍진솔 자매
설교	[높이는 자, 낮추는 자]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288장		
주기도	다같이		

[10월 기도 순서]  
10월 20일 (주일) / 김철재 집사  
10월 23일 (수) / 헌신예배  
10월 27일 (주일) / 이광희 장로  
10월 30일 (수) / 김은희 집사

[10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0/13  
21권 41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살롬~! 생명나무 공동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생명나무 공동체 연합 마을 전도** 6월 한 달 동안 ‘생명나무 장로교회,’ ‘껌뽕스포 생명나무교회,’ 두 개 교회와 ‘스롱 생명나무’ 한 개 기도 처소의 청장년들이 연합으로 마을 전도와 캠퍼스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뜨거운 빛이 내리쬐는 것도 아랑곳 않고 주변 5개 마을과 ‘슬랩렝 중고등학교’를 천사들이 누비며 아이들과 부모님,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비전이 넘치는 스롱 마을** 백여 가정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유명한 큰 절이 자리 잡은 그곳, 그래서 모든 것이 힘에 겹고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이지만, 그곳에서 소망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롱 열 자매.” 다른 마을 주변의 청소년들에 비하면 방치된 아이들이나 다름없던 그들. 그러나 예배의 열정, 찬양은 특심, 전도에 눈을 뜨는 아이들. 열 명의 자매들이 11월 세례식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도 제목

- 1) 전도사와 리더를 중심으로 아동 / 청소년 / 장년 소그룹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소서.
- 2) 서리 집사, 제직회가 세워지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길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가 되도록.
2.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분열과 반목에 병든 한국 사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지난 주일 오후 ‘신앙의 토대’ 주일반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에 대해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많이 듣고 배워서 익히 아는 것이라 교과서적인 대화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마무리 지으려는 데 갑자기 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떤 집에 키우던 병아리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아리 고치려면 그 집의 아들을 죽여 삶아서 그것을 병아리에게 먹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이것이 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하자 함께 공부하던 성도들이 모두 뒤통수를 얻은 맞은 듯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놀라는 이유가 뭐, 설마 그 정도일까? 너무 비약된 이야기 같다, 뜬금없는 이야기라는 등 다양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된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멍하니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한마디 더 보았습니다. 병아리와 아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자이시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것과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 중 어느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후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쉽게 받아들이기 난처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시(?) 했을 뿐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는 별로 느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들음은 웅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한 말이라서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창조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한 죽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그러려니 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토대’ 성경공부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터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희미해질 때 병아리를 생각하자며 1과를 마쳤습니다.

이태한 목사

창세기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